



제93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이 열린 11일 대구스타디움에서 광주시(왼쪽)와 전남도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신궁’ 기보배 오늘 금메달 조준

전국체전 개막 ... 본격 메달 레이스 돌입

양학선·진종오 등 올림픽스타 대거 출전

‘맘·뎌·똥 달구벌에서 하나로!’ 제93회 전국체육대회가 11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7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세종시의 참가로 17개 팀의 대결이 된 이번 체전에는 2만4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각 시·도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경기도가 최대규모의 1985명 선수단을 파견해 대회 11연패를 노리고, 처음 전국체전 무대를 밟는 세종시는 가장 적은 214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이번 대회에는 육상, 수영, 하키, 역도, 야구 등 42개 정식 종목과 산악, 댄스스포츠,

탁구 등 3개 시범 종목에서 우승을 향한 선수들의 도전이 펼쳐진다. 14위를 목표로 1125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광주는 대회 첫날 동메달 하나를 수확했다. 1625명의 선수단을 내세워 11위를 노리고 있는 전남은 2개의 은메달과 1개의 동메달을 획득했다. 조선대가 11일 안심하키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일반부 하키 준결승에서 성남시청에 2-5로 패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의 대회 첫 메달이다. 전남은 사이클과 역도에서 메달이 나왔다. 국가대표 나야름(나주시청)이 사이클 여

자 일반부 3km 추발에서 3분58초72에 결승선을 끊으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역도 여고부 63kg의 김영은(전남체고)이 용상에서 103kg를 들어올리며 은메달을 획득했고, 합계 188kg로 동메달을 추가했다. 전남은 사전경기에서 나온 메달을 포함해 은3, 동4개를 기록하고 있다. 사전경기로 진행된 롤러에서 남자일반부 김지원(여수시청)이 은메달, 남고부 안익현(여수 충무고)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배드민턴에서는 남자일반부 복식의 이용대·조건우(삼성전기)와 여고부 복식의 김나영·한가희(화순고)가 동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와 전남은 대회 이틀째인 12일 본격적인 금메달 사냥을 시작한다. 광주가 정구·레슬링·태권도·양궁에서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특히 단년올림픽 2관왕 기보배는 양궁 여자 일반부 60m에 출전해 실력발휘에 나선다.

전남은 사이클, 수영, 양궁, 역도, 유도, 태권도, 정구에서 10개 이상의 금메달을 기다리고 있다. 역도 남고부 69kg의 이인우(완도수산고)는 전남의 첫 2관왕에 도전한다. 한편 올 시즌 전국체전은 올림픽이 열린 해에 개최되면서 런던을 빛낸 ‘태극 전사’들의 활약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 체조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한 ‘도마의 신’ 양학선(한국체대·광주), 올림픽 사격 2관왕에 오른 진종오(KT·부산)와 25m권총 금메달리스트인 김장미(부산시청), ‘미녀 검객’ 신아람(계룡시청)과 남현희(성남시청), 태권도 첫 올림픽 2연패를 이룬 황경선(고양시청·경기),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결선에 오른 ‘요정’ 손연재(세종고·서울)가 지역 대표로 출전한다. 역자 역도의 간판 장미란(고양시청)은 10년 연속 전국체전 3관왕을 노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회인야구 ‘불방망이 쇼’ 보세요”

13·14일 무등기 3주차 경기

본량구장·무등중 등서 열려

무등기 사회인 야구대회 3주차 경기가 열린다.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제2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10경기가 13·14일 진행된다. 13일에는 본량구장에서 인왕리그 16강전 두 경기가 열린다. 지스트레곤스와 청연한방병원, 신양구단과 위리어스 3부가 대결을 갖는다. 같은 날 무등중학교 야구장에서는 승천드레곤스가 나이너스와 인왕리그 8강

티켓을 다루고, 장성포비스와 화순 NH 자이언츠는 전남리그 8강전에 나선다. 14일에는 광주일보 야구장과 본량구장에서 경기가 진행된다. 광주일보 야구장에서는 곡성 금호리케인-화순 에슬레틱스, 순창 레드페퍼스-장성랜드포스, 영광 YG프리티즌스-화순야구파크 등 전남리그 8강전이 잇달아 열리고 데인저스-허버베이스볼의 천왕리그 8강전도 펼쳐진다. 본량구장에서는 준모터페가수스와 위리어스 1부의 천왕리그 8강전이 전개되며, 푸른바다와 팔도참오리도 천왕리그 4강을 놓고 맞대결을 벌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김란숙 6관왕 명중

전국장애인체전 ... 탁구 김영건 2관왕 스매싱

광주 김란숙이 6관왕을 명중시켰다. 런던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김란숙이 11일 안산 시남운동장에서 열린 제3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여자 양궁 리커브 개인전(ARST)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6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고희숙(경기도), 이화숙(서울특별시)과 팀을 이뤄 출전한 런던 패럴림픽 여자 양궁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물리치고 한국의 첫 단체전 금메달을 이끌었던 김란숙은 장애인전국체전 전종목(여자 리커브 개인전, 30m, 50m, 60m, 70m, 개인종합)을 휩쓸며 6관왕의 위업을 달성했다. 남자 리커브 개인전(ARW2)에 출전한 이명구도 대회 세 번째 금메달을 쏘며 3관왕이 됐다. 육상에서도 3관왕이 나왔다. 여자 육상

100·200m 우승을 차지한 이하은이 400m에서도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대회 세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런던 패럴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인 김영건은 남자 복식(TT4)에 이어 단식에서도 금빛 스매싱에 성공하며 2관왕에 올랐다. 김민규도 남자단식(TT2) 금메달을 추가했다. 김공용(TT2), 조재관(TT1), 김정길(TT4)도 은메달을 획득하며 광주시청 탁구 실업팀 전원이 메달을 목에 걸었다. 역도의 강승철·장성흥도 각각 은메달 3개씩을 따내는 등 광주는 11일 5개의 금메달과 13개의 은메달 6개의 동메달을 추가했다. 전남에서는 역도 3관왕이 나왔다. 남자 -82.5Kg급에 출전한 김병영이 파워리프팅, 웨이트리프팅, 벤치프레스 종합에서 금메달을 들어올리며 3관왕이 됐다.



런던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란숙이 광주대표로 출전한 전국장애인체전에서 6개의 금메달을 명중시켰다.

여자 육상(T20)의 박영순도 800m1500m에 이어 400m에서도 금빛 질주에 성공하며 3관왕이 됐다. 박영순은 이번 대회 신인선수 후보로 추천되었으며, 박영순을 지도하고 있는 덕수학교 박금복 교사는 지도자 후보

로 이름을 올렸다. 양궁 안성표와 탁구 남자 단식의 이정호와 여자 단식의 김미순은 전남에 값진 은메달을 안겨주는 등 전남은 금3, 은3, 동 5개를 추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국제배구연맹 “김연경은 흥국생명 선수”

김연경 “받아들이기 힘들어 ... 쉬고싶다”

터키 페네르바체 이적을 둘러싸고 넉 달 이상 마찰을 빚어온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 구단과 김연경(24·사진) 간의 분쟁에서 국제배구연맹(FIVB)이 흥국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국제배구연맹은 아리 그라샤 신임 회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 “김연경의 현 소속구단은 흥국생명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대한배구협회가 11일 밝혔다. FIVB는 “따라서 터키협회와 김연경은 이적에 대해 대한배구협회, 흥국생명과 협상해야 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대한배구협회의 중재 의뢰를 받은 FIVB 측에서 김연경이 FA 신분이 아닌 흥국생명 소속의 임대 선수임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김연경 파문’은 흥국생명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번 결정에 따라 김연경과 터키 페네르바체 구단은 국제 이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대한배구협회, 흥국생명과 협의해야 한다. FIVB가 흥국생명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김연경은 2년간 페네르바체에서 뛰 뒤 국내로 복귀해 FA 선수에 필요한 두 시즌을 소화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아울러 김연경은 기존 페네르바체와 맺었던 계약 대신 주체를 흥국생명으로 바꿔 새 계약서를 써야 한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은 “FIVB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김연경을 만나 원만한 합의를 거쳐 해외 무대에서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연경은 FIVB의 결정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애초 나와 흥국생명, 배구협회가 맺은 합의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FIVB가 이를 공개하면서 내게는 안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FIVB가 국제 규정 대신 합의서를 근거로 내린 결정이라 수용할 수 없다는 자세다. 김연경은 “현재로서는 무릎을 수술하고 몇 개월 쉬고 싶은 생각도 든다”며 심한 좌절감을 토로했다. /연합뉴스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Be natural
Be delicious**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풍일방문 고객별-
[맥주 or 소주 1병]
[와인 or 생맥주 1잔]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 사우나
24시간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